

흔들리는 “현대예배” 강해설교가 사라져 간다

21세기 종교개혁의 의미 설교개혁이 가장 우선돼야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박사)와 한국개혁신학회(회장 주도홍 박사)가 10일 서울교회에서 “21세기에 있어 종교개혁의 의미”를 주제로 ‘종교개혁신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종윤 박사(서울교회 원로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는 “오늘날 설교의 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전했다. 오늘의 교회 내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설교의 개혁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은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라 말하고,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이라 했다.

특히 이종윤 박사는 현대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강해설교’가 사라져가고 있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그는 “강해설교가 현대인의 강단에서 점차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며 “강해설교가 오늘날의 시대에 회복되거나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 박사는 강해설교의 장점에 대해 먼저 강해설교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그 안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활동을 선포한다. 예배자의 중심과 초점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어떤 관심과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다. 이 박사는 “설교는 청중의 관심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이 박사는 강해설교가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깊이 있게 하고, 회중에게는 성경을 배우게 해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했다. 특히 강해설교는 성경 전체를 다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잡아 제공한다는 점도 강점이라 했다.

이어 이 박사는 ▶성경본문과 함께 시작하고 ▶성경본문과 현실세계 두 지평의 융합을 찾으며 ▶예를 들어 ‘1세기 고린도서가 왜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적절한 말씀이 되는지’ 적합성을 보인다는 강해설교의 핵심원리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에 계속]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 중인 전통결혼 지지자들과 동성결혼 지지자들. ©크리스천포스트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법학자들 ‘부당성’ 지적, 국민들 판결 거부 권리 찾도록 도와야

법 전문가들과 학자 64명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판결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워싱턴 DC 소재 보수 시민단체인 아메리칸 프린시플스 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는 지난 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의 원문과 논리, 구조와 원래의 해석 모두는 물론 법원의 법 해석 원칙과 판례까지 무시한 판결을 내렸음은 물론이고, 어째서 각 주의 법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임스 매디슨과 에이브러햄 링컨이 천명한 미국 국민의 권리를 인용하며, “모든 연방 및 각 주 소속 공직자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거부해야 한다. 각 주가

결혼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권리와 연방과 주 소속 공직자들이 이러한 정의에 따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성명서는 주장했다.

성명서는 “앞으로 광범위하고 진실된 대화의 장을 여는 데 공직자들이 앞장 서서 미국 국민이 헌법상 권리에 따라 판결에 저항하고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서명한 법 전문가와 학자에는 프린스턴법학대학 로버트 조지 교수, 클레어몬트맥케나법학대학 랠프 로섬 교수, 델러스대학 정치학과 로버트 새신 교수, 산타페세인트존스대학 존 아그레스토 전 학장 등이 포함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6일 5대 4로 각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길을 열었다.

순헌정 기자

“이 땅을 고쳐 주소서”

한인중심 다민족연합기도회 11월 29일 오후 4시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부흥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회가 올해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개최된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로즈볼, 2014년 11월 11일 버라이즌아외극장에서 열렸던 다민족기도회는 라인인더샌드(A Line in the Sand)가 주최하고 여러 민족 중 한 민족으로 한인교회가 초청받는 형식이였다면, 이번에는 한인교회가 주도하고 라인인더샌드가 협력해 다민족

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인들의 저력은 이미 지난 두 차례 기도회 참여자 수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지난 기도회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종일 열리는 집회 중 약 2시간이 한인들이 인도하는 기도 시간으로 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로즈볼 기도회에서는 총 3만 5천여 명 참석자 중 한인이 1만 2천여 명에 달했고 버라이즌 기도회에서도 시간대 별로 5백여 명을 채 넘지 못했던 참가자 수가 한인 기도 시간에는 단숨에 5천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도회는 행사 장소가 애너하임 앤젤스스타디움에서 혼다 센터로, 또 버라이즌극장으로 변경

되는 등 혼선이 컸다. 앤젤스스타디움의 대관비 35만 달러 모금과 혼다 센터의 대관비 17만 달러 예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는 GMI(은혜한인교회) 명의로 행사 장소인 애너하임컨벤션센터를 예약하고 이미 대관비도 지불 완료했다. 그만큼 한인교회들이 이번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원래 라인인더샌드는 이번 해가 아닌 다음 해에 다민족기도회를 열려 했으나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미국의 영적 위기를 의식하며 라인인더샌드 측에 기도회를 제안했고 협력을 얻어낸 것이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OC기평연 제35회 교계연합음악제

광복70주년 남북평화통일기원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 주최 제35회 교계연합음악제가 11일(주일)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나라정비 타이어 데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론펬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ivydream.com

수확의 계절 4주연

안수예배 및 부흥회

부흥회 일정
 강사: 박정근 목사 (부산영안침례교회 담임)

- 10/16(금, 저녁 7:30) : 마태복음 8:18-27, 제자의 자격
- 10/17(토, 새벽 6:00) : 요한복음 8:1-11, 제자의 모습
- 10/17(토, 저녁 7:30) : 요한복음 13:34-35, 제자의 계명
- 10/18(주일 1,2,3부 예배) : 마태복음 20:1-16, 제자와 은혜

안수 예배
 10/18/2015(주일) 오후 4시 본당
 안수집사 김진홍, 구연성, 신수연

박경호 담임목사

- 주님사랑(Love Jesus)
- 영혼사랑(Love Souls)
- 복음전파(Share Jesus)
- 인재양성(Raise Spiritual Leaders)

예배 안내

- 1부: 오전 7시 30분
- 2부: 오전 9시 30분
- 3부: 오전 11시 30분
- 4부: 오후 1시 30분 (청년 한국어)
- FAME 예배: 오전 11시 30분 (장년 영어)
- EM 예배: 오후 1시 30분 (청년 영어)
-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월-금), 오전 6시 (토)
- 장년부 수요일성령기도회: 오후 7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엘바인 침례교회
 IRVINE BAPTIST CHURCH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857-9425 www.irvinechurch.com

“OC 기평연, 제35회 교계연합음악제”

[1면으로부터 계속] OC기독교 평신도연합회(이하 OC기평연, 회장 윤우경) 주최 제35회 교계 연합음악제가 11일 오후 6시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는 특별히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평화통일 기원 음악회로 꾸며졌다.

이 음악제는 윤우경 회장의 사회로 시작돼, 먼저 김영길 목사와 신복수 장로(OC기평연 이사장)가 오수연(ABC통합교육구)교육감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어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혜한

인교회, 감사한인교회, 나침반교회 합창단과 KAMA어린이 합창단, Deliverus연주팀, LA Christian Singers, 그리고 오렌지 미션 남성중창단, 소프라노 양유진, 베이스장진영 교수가 각각 솔로 독창으로 함께 했다.

손인식 목사(UTD(그날까지)-KCCC 대표)와 탈북자 지성호 형제, 신은하 자매의 동영상 메시지는 남과 북의 피흘린 없는 통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며 청중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당일 모금된 현금 2032불 전액은 UTD의 북한사역을 돕기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OC기평연 제35회 교계연합음악제에서 참가자 전원이 함께 ‘할렐루야’를 합창하고 있다.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담임)의 통일에 대한 메시지는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염원을 상기시켰으며 참석자들은 테너 오위영 목사의 인

도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합창으로 그 염원을 화답했다.

끝으로 다함께 헨델의 메시아 오페라리오 곡 중 ‘할렐루야’를 기립

하여 합창한 후 김기동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의 축도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됐다.

[자료제공: OC기평연 미디어부]



다민족연합기도회 설명회 및 기자회견이 8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주님 향해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 주소서’”

한인교회 중심으로 다민족 기도회 열린다

[1면으로부터 계속] 지난 기도회는 하루종일 진행됐고 민족별로 정해진 시간대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11월 29일 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Heal Our Land(이 땅을 고쳐 주소서)’란 주제 아래 모든 민족이 함께 기도한다.

행사는 한·영어로 진행되며 그 외 민족을 위해 동시통역기가 제공된다.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전국기도연대 대표)는 이번 행사에 대해 “시대적 요청”이라면서 “한인이 중심이 되지만 타민족 지도자들의 기도

인도와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등 타민족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케 한다”고 설명했다. 주최측은 오는 11월 2일 흑인, 백인을 포함해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민족 지도자들을 은혜한인교회로 초청해 설명회와 기도회를 여는 등

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8일 열린 행사 설명회에서 교계 지도자들은 미국의 영적 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 총장)는 동성결혼 등 미국의 영적 위기를 언급한 후 “기도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 기도할 때 고쳐주실 것”이라고 설교했다. 강순영 목사(JAMA 대표)는 “하나님을 떠난 법이 원상으로 회복되도록 도시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야 한다. 미국에 부흥이 임하면 세계 선교를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다”고 강조했다.

한기홍 목사는 지난 다민족기도회가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언급했다. 한 목사는 이 기도회 후 한인교계를 대표해 지난 5월 연방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가기도의날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고 기도해 AP통신 등 주류사회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

들이 참석하고 전세계로 생중계된 행사에서 동성결혼이 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당시는 ‘내가 과연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볼 수 있을까’란 생각까지 들었지만 이것이 언론들에 보도되면서 미국사회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부흥을 반드시 주신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행사를 준비하며 남가주 각 지역 교협과 목사회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행사 당일 전까지 교회들이 40일 연세 금식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11월 8일이나 15일을 다민족연합기도회 주일로 선포하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홍보하고 참여해 달라 요청 중이다.

이 행사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JAMA, OC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하고 OC목사회·원로목사회·여성목사회·평신도연합회, 장로협의회, 미주성서화문동분부, KCCC 등이 주관한다.

김준형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가 창립3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38명의 직분자에 대한 임직식을 가졌다.

웨스트힐장로교회 “은혜 30년 기쁨 30년”

창립30주년, 38명 직분자 세우고 미래 향해 힘차게 전진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가 11일(주일) 이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감사예배와 임직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30주년을 기쁨으로 지켜주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김인식 목사는 이날 드러진 주일설교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주신 구원 확신 성령충만 세계선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 말했다. 김 목사는 “주님이 오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시

고 다시 살아나셨다. 구원을 통해 얻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성령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세계선교가 우리 교회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명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 웨스트힐교회 본당에서 드러진 임직감사예배에서는 38명의 임직자가 세워졌다.

김인식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임직식은 감사예배와 임직 순으로 진행됐다. 잠25장11-13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한 박희민 목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 되라”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것”을 권면했다.

이어 진행된 임직식에서는 임직자 서약과 안수례, 선포 등을 통해 시무장으로

4명, 권사 23명, 안수집사 2명, 집사 9명 등 총 38명의 임직자를 세웠다.

권면을 전한 조원근 목사(KPCA LA 노회장)는 “직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라”고 전했다.

임직자를 대표해 인사를 전한 박재호 장로는 “부족함에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소감을 전한 김인식 목사는 “30주년을 맞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도들의 무조건적 헌신도 은혜였다. 교회 역사상 38명이란 가장 많은 직분자를 세운 것도 은혜다”라며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웨스트힐교회는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음악회’를 오는 10월 24일(토)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열 예정이다.

이인규 기자

제1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설교 페스티벌

1st United Preaching Festival of Theological Seminaries in Southern California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서 장차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현장에서 헌신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설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설교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7일 (토), 오전 9:00 ~ 오후 12:30
장소: 나성영락교회 본당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 Tel. 323-227-1400)

<p>주최 7개 (신학) 대학교 국제개혁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미성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에반젤리아복음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가나다 순)</p> <p>주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참가대상 인준받은 학교의 신학생들 (현재 M.Div., MA, 과정 등록 학생)로 신학교 자체 설교대회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p> <p>본문 빌립보서 3장 10-16절</p> <p>심사기준 (1) 전달력과 열정, (2) 정확한 본문 주해, (3) 설교 구성 (시간 엄수 포함), (4) 삶과 교회 현장의 적용성 / 각 25점</p> <p>기타 설교 페스티벌 후 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10 상당의 대회 기념 로고가 새겨진 USB와 함께 점심이 제공됨.</p> <p>문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무처장 구경모 교수 (Tel. 562-926-1023, Ext. 303 / kmkoo@ptsa.edu)</p>	<p>상과상금</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td>대상 (John Chrysostom 상)</td><td>\$ 3,000</td></tr> <tr><td>설교상</td><td>\$ 2,000</td></tr> <tr><td>주해상</td><td>\$ 2,000</td></tr> <tr><td>커뮤니케이션상</td><td>\$ 1,000</td></tr> <tr><td>참가상</td><td>동외 3명의 학생에게 각 \$ 300</td></tr> </table> <p>심사위원 고승희 목사, 김병학 교수, 김진호 교수, 김은철 교수, 류시하 교수, 정성환 교수, 이경원 교수, 한기원 교수 (가나다 순)</p> <p>후원 나성열린문교회 (박현성 목사), 남가주교회협의회 & 주안예교회 (최혁 목사), 누가대학교 (설립자 김영대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박승규 목사), 미주서부장로교회 (김선의 목사), 복음사 (주정욱 사모),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생명의말씀사 (전인철 목사),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김기동 목사), 이학진 장로 (씩난 지평이 성경 통독 사역원), 주님의빛교회 (주혁로 목사), 최문환 장로 (월드미션대학교 이사장), 총현선교회 (민종기 목사), 한양장로교회 (강일준 목사), Green M, Wild (Eric Kim 사장)</p> <p>협찬 CTS, 기독교뉴스, 기독교일보, 뉴스앤조이, 미주복음방송, 미주크리스천신문, 우리복음방송, 크리스천투데이,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위클리, 크리스천헤럴드 & TV</p>	대상 (John Chrysostom 상)	\$ 3,000	설교상	\$ 2,000	주해상	\$ 2,000	커뮤니케이션상	\$ 1,000	참가상	동외 3명의 학생에게 각 \$ 300
대상 (John Chrysostom 상)	\$ 3,000										
설교상	\$ 2,000										
주해상	\$ 2,000										
커뮤니케이션상	\$ 1,000										
참가상	동외 3명의 학생에게 각 \$ 300										

칼빈의 교회 정치 이해와 장로교회들의 과제 개혁주의학술원 세미나서 폴 웰스·주도홍 박사 발제

개혁주의학술원(원장 이신열)이 8일 오후 고신대학교 비전관 손양원기념홀에서 '종교개혁과 프랑스 개혁교회'를 주제로 제10회 종교개혁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 폴 웰스(장칼뱅신학교 명예교수)·주도홍(백석대) 박사가 나섰다.

◆17세기 프랑스 교회들의 정치

먼저 '17세기 프랑스 교회들의 교회 정치'를 제목으로 발표한 웰스 박사는 "교회 조직을 보다 상황적 측면에서 구성했던 마틴 루터와는 대조적으로, 칼빈은 교회 조직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며 "우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직접적으로 놓여 있으며, 그 어떤 인간적 위계질서 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에는 아주 명백한 교회 정치의 양식(pattern)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점에서 칼빈은 루터의 '두 왕국 이론', 즉 사회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사상을 루터보다 훨씬 일관성 있게 적용했다"며 "시민 정부의 차원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강요'의 제일 마지막 장이 보여주듯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격적인 대표자들이 왕의 독재에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웰스 박사는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시민 정부에서와 같은 직접적인 인간 통치자가 없다"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치 국가에서 인간 왕 아래에 있는 이들처럼, 그리스도 아래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교회는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와 같지 않다. 오히려 교회의 질서는 지명된 직분자들에게 의해서 보증된다. 칼빈은 성경이 이러한 교회 질서에 대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 교회 정치는 17세기 프랑스에서 모범적으로 형성됐다. 장로들의 모임이 이끄는 교회라는 개념이 발의시킨 장로교주의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지역교회의 리더십 안에 권위를 위치시킨다"며 "이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묘사한 지역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의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웰스 박사는 그러나 "17세기 프랑스 교회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며 "하나의 교회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개신교 귀족들과 지적인 엘리트들에 너무 매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사회적 요소가 칼빈과 그 이후 발군의 교회 개혁자

들이었던 테오도르 베자와 피에르 비레가 실천적으로 기초를 세운 견고한 토대를 넘어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나 하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17세기의 프랑스는 로마가톨릭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고, 사람들은 대개가 문맹이었고, 많은 경우 프랑스어에도 말하지 못했으며, 다만 파투와(patois), 즉 각 지역 간에 서로 이해를 못하는 지역 방언만을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가톨릭교도들은 이런 상황에 응해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17세기 전체에 걸쳐서 전도 사역에 대해 매우 미미한 비전만을 가졌을 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엄중한 사실은 이러한 교회들은 17세기에 점차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많은 지점에서 장로교회들에 여전히 유효한 문제점들이다. 내부 문제에 너무 집착해 주변 세계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는 형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칼빈 불러낸 파렐, 역사적 인물로 평가해야

이어 주도홍 박사는 '파렐, 칼빈의 동지, 프랑스 종교개혁의 선구자'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정중앙) 폴 웰스 박사 ©개혁주의학술원

제목으로 발표했다. 주 박사는 "칼빈 곁에서 종교개혁을 위해 힘을 다해 함께 헌신했던 인물들이 적지 않다"며 "이름도 빛도 없이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성취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주목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들추어내는 일은 후대의 마땅한 몫"이라고 했다.

그는 바로 그러한 '동지'들로 부처(Martin Butzer, 1491-1551), 비레(Pierre Viret, 1511-1571),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 베자(Theodor von Beza, 1519-1605), 멜랑히톤(Philipp Melancthon, 1497-1560),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 녹스(John Knox, ca. 1513-1572), 올리베탕(Pierre Robert Olivetan, 1506-1538) 등을 소개하며, 특히 파렐의 생애와 사상 등을 살폈다.

주 박사는 "파렐에 대한 모든 서술과 내용들에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일은 그의 동지였던 칼빈을 생각하는 일일 것"이라며 "그들은 16세기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종교개혁의 과업을 신실히 이루려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는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각 체로 보내 주시고 붙여 주신 신실한 종들이 각처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힘을 합쳐 이룩한 작품이었다"고 했다.

주 박사는 "안디옥교회의 바나바가 다소의 바울을 불러내었던 것처럼, 칼빈의 생애에 있어서도 파렐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인물로 마땅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흔들리는 "현대예배" 강해설교가 사라지고 있다

21세기 종교개혁 의미...설교개혁이 가장 우선돼야



"21세기에 있어 종교개혁의 의미"를 주제로 '종교개혁신학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종윤 박사가 기조강연을 전하고 있다.

[1면으로부터 계속] 또 설교자는 강해설교를 준비할 때 ▶비 마음으로 묵상하라 ▶충분히 읽어라 ▶분명하게 기록하라 ▶뜨겁게 기도로 익혀라 ▶자신이 설교한다는 것은 잊고 설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윤 박사는 "강해 설교자가 선포하는 진리의 권능을 스스로 체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맡겨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그들 중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양들의 환경과 여건을 분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하고, 인간 영혼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 박사는 "성경 본문은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성경의 모든 구절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도록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설

교자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그리고 현대인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기대감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해외 석학으로 초청되어 온 독일 레겐스부르크대(Regensburg Univ.)의 한스 스바르츠 박사(Dr. Hans Schwartz)는 "마르틴 루터의 직업 이해의 중요성"을 주제로 첫 발표했다.

그는 "중세시대는 오직 종교적 직업만을 천직으로 이해한 반면, 루터는 세상의 직업과 종교적 직업의 중요성을 동일시했다"고 말하고, "루터는 양자 모두를 이웃을 위한 봉사이자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스 스바르츠 박사는 "우리는 한 가지 직업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교회적 여러 정황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수행하는 실제적인 직업은 타인의 필요성과 내 자신의 교육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중요한 점은 "급료나 지위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품성"이라 강조했다.

행사는 두 사람의 발표 외에도 폴 웰스 박사(Paul Wells, 프랑스 칼빈신학교)와 J. V. 페스코 박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 로버트 레담 박사(웨일즈 복음주의신학교), 리처드 C. 갬블 박사(리폼드신학대) 등의 해외 석학 강연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최갑중 박사(백석대 총장), 황대우 박사(고신대), 김재성 박사(국제신대), 이상은 박사(서울장신대), 김대웅 박사(총신대), 김경렬 박사(총신대)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김규진 기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10월 13일 동성교회에서 미주 대신 남가주노회가 열린 가운데 전한석 강도사가 목사로 임직했다.

“미주 대신총회에서 백석 출신 목사 안수 받아”

지난 9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와 백석총회가 대신총회 이름으로 통합된 이래 미주 대신 남가주노회에서 백석 출신 목사가 배출됐다.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동성교회(박효우 목사)에서 열린 남가주노회에서는 남가주해오름교회에서 사역 중인 전한석 강도사가 목사로 안수 받았다. 전 목사는 백석대와 백석대 대학원을 졸업한 전형적인 백석 출신이지만 이번 노회에

서 미주 대신 목사로 안수 받은 것이다.

이날 목사 임직식에서는 노회장 김영배 목사의 사회로 송주한 목사(남가주해오름교회)가 기도하고 박효우 목사가 “성도의 분이 되는 목회자(딤후4:6-12)”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류당열 목사, 강부웅 목사, 박병구 목사 등이 축사와 권면 순서를 맡았고 축도는 이의완 목사가 했다.

김준형 기자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 영성세미나”

박문환 목사, 신인환 선교사 초청 세계선교 비전 나뉨



박문환 목사



신인환 선교사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회장 이기미) 10월 정기예배가 11일(주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마가교회(채동선 전도사 시무)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예배는 장소이전 감사예배 겸 영성세미나로 개최됐다.

제1부 예배에서 박문환 목사(세계가교통신교회 부목사)는 ‘세계선교와 증인’(눅24:46-49)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새 생명을 의미하는 ‘십자가와 부활’, 체험과 헌신, 그리고 능력의 ‘증인’, 위로부터 내려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능력’ 행사 등의 중요한 3가지 특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기독교한의사협회 회원들 모두가 의술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확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길 바란다고 했다.

제2부 영성세미나에서는 아프리카 브룬디에서 한센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신인환(신응남) 부부 선교사가 강사로 초빙돼, 열악한 환경과 육체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크리스천들의 삶에 대한 도전을 줬다.

신 선교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의 삶이 일치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선교사는 간암과 갑상선암을 극복하고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다.

한편,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5시에 정기예배를 드리며 의술을 통한 현장선교를 선도하고 있다. 문의는 213-235-7169(회장 이기미)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탈북민 장학기금 마련 선교바자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회장 강지원 목사)에서 탈북민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선교바자회를 개최한다.

*일시: 10월 15일(목)-17일(토)
 *시간: 오전 10시 30-오후 7시 30분
 *장소: 한우리장로교회
 *주소: 1932 10th Ave., LA, CA90018

KINGDOM 킹덤드림 콘서트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자”, ‘디아스포라여 복음의 동진을 일으키자’ 주제로 ‘2015킹덤드림 콘서트’ 투어가 진행 중에 있다.

천관웅 목사(한국 뉴사운드교회)가 스피커로 나서고 워십은 뉴제너레이션워십팀이 인도한다.

- ◇LA 지역◇
 - *일시: 10월 17일(토) 오후 2시
 - *장소: Belasco Theather
 - *주소: 1050 S Hill St., LA, CA 90015
- ◇San Jose 지역◇
 -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6시
 - *장소: Jubilee Christian Center
 - *주소: 175 Northech Pkwy, San Jose, CA 95134
 - *입장료: 무료
 - *문의: LA(310-905-2228) San Jose(408-761-7375)
 - *웹사이트: kingdomdreamintl.com

1일 신약통독집회 11월 3일(화)

하루만에 신약성경을 통독하는 집회가 열린다.

*일시: 11월 3일(화)
 *시간: 오전 8시-오후 9시 30
 *장소: 할리웃효순장로교회
 *주소: 1101 S Elden Ave., LA, CA 90006
 *등록비: 무료
 *문의: 213-268-3589

한인기독교상담소 세미나

한인기독교상담소가 10월 동안 매주 목요일 “용서치유와 분노조절”이란 주제로 소그룹 세미나를 진행한다. 22일 감정 인식과 표현, 29일 분노인식과 조절이 주제다. 오전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오후반은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다. 문의는 213-738-6930이다.

“하나님 나라 위해 삶을 드려라”

남가주사랑의교회 영적각성집회 부산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강조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수영로교회 담임 이규현 목사를 초청 영적각성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서 이 목사는 ‘복음을 경험하라’(요한복음 2:1-11), ‘복음에 감탄하라’(로마서 1:16-17), ‘복음에 충주라’(요한복음 10:10), ‘복음에 사로잡혀라’(마태복음 6:24-34) 등의 제목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설교했다.

산상수훈의 일부를 본문으로 삼은 주일 예배 설교에서 이 목사는 “살다보면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다. 초점을 맞추면 파워 있는 삶을 살지만, 초점이 흐려지면 낭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며 “인간은 유형, 무형의 것들을 섬기는 존재다.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다. 십계명 중

일계명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가 ‘염려’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평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며 사랑할 때, 온갖 염려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에는 만족이 없다. 거기에 더 얻기 위한 전쟁만이 있다. 예수님을 그 전쟁을 종식시킬 길을 가르쳐 주셨다. 꼭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시킬 때 그분의 공급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그분께 드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목사는 호주로 유학가 1992년 3가정과 함께 새순장로교회를 개척, 19년 반 동안 목회하는 동안 3,0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신앙공동체로 성장시킨 바 있다. 2011년에는 과거 자신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수영로교회의 2대 담임으로 부임해 정필도 목사에 이어 미래세대 복음화와 차세대 리더 양성에 주력하는 등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김장섭 기자



강사 이규현 목사 부산수영로교회 담임



오네시모선교회 후원 음악회

10일 오후 오렌지카운티는강연합감리교회에서 오네시모선교회(회장 김석기 목사) 후원 음악회가 열렸다. 후원회 이사장인 심현식 장로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김석기 목사는 영상을 통해 선교

회 내용과 감옥사역 및 바이블 칼리지와 추방자 사역 등을 보고했다. 음악회는 매조 소프라노 정희숙씨, 테너 전승철씨, LA남성선교합창단(지휘: 원영진) 등이 꾸몄다. 엄영민 목사(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는 축도로 함께했다.

[자료제공: 오네시모선교회]

기독교일보

편집교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외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3.7.21

재능계발캠프

Super Brain Power

6 Keys to unlocking your hidden geniu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 1 Train and value all your intelligences.**
내가 가진 모든 지능을 계발하고 소중히 여긴다.
- 2 Make greater use of any intelligence you are already tapping.**
이미 계발하고 있는 지능이 있다면 더욱 활발하게 이용한다.
- 3 Appreciate just how smart you really are:**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인정한다.

3.7.21

힐링캠프

행복을 찾아서
내 몸을 깨끗하게

텐트, 자연치료
디톡스, 별 보기
유황 온천, 두드림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USA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사명의욕과 물질 관리의 지혜

에스라 8:21-3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극

이스라엘은 포로생활 중에 참혹하게 짓밟히고 학대와 멸시, 천대를 겪으면서, 현재 처한 상황의 원인을 찾아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조물주의 기대와 목적에 어긋나면 비참한 신세로 건디기 어려운 상황속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39년 전에 부강한 세력의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그에게 바벨론을 쳐부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가 바벨론을 점수한 즉시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70년간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하며 착취당했던 노동력의 삶을 한겨번에 쟁거 가도록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중 오만 명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 포로귀환을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완공하기 앞서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24년 뒤에 하나님의 재촉하심을 따라 성령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BC 515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터에 초라하게라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유권도 없었던 서러웠던 70년간의 포로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영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 해방과 독립을 이루었고, 불탄 성전도 재건됨으로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해결된 듯 보였지만 그들은 방탕하고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방여자와들 통혼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미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며

죄악을 즐기는 타락의 길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2. 회개와 영적신앙운동을 위한 개혁

이 소식을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에스라라가 들었습니다. 그는 1차 포로귀환이 있고 한참 후 태어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와 비참한 포로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도우심을 입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바벨론의 멍에와 채찍을 벗어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접한 에스라는 나라가 망하고 전멸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에스라 9장 3-4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그 당시 에스라는 바사의 서기관으로 일하면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명에 의한 의욕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지금껏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기 때문이기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와 영적신앙운동을 위해 개혁을 시도하고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닥사스다 왕을 성령으로 사로 잡으셨기에 흔쾌히 허락을 받았으며 왕으로부터 조서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이

2차 포로귀환입니다.

에스라 7장 9-10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오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로만 가르치고 행함이 없다면 거짓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목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생활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 목자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며 붙들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보다 훨씬 나은 신앙을 가져야 신앙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하나님께 불합리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조서의 내용은 에스라 7장 13-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애를 바치고 사명의욕이 불타는 준비된 사람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기대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모든 왕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허락받았습니다. 심지어 왕의 내탕고에서까지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조치였고, 그가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서 절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돈이 없어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여건은 세상 제왕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뒷바라지 해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성결한 모습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개혁신앙을 시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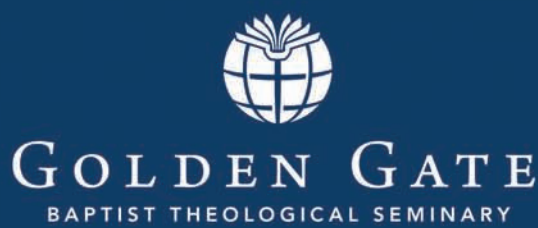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속화 추세에 편승하여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합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 영혼이 지옥가지 않기 위해 철저한 회개와 죄를 용서받은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힘쓰는 에스라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 목회학박사(D.Min.)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찬양인도자 청빙

영성과 실력을 갖추신 사명감이 투철한 분을 찾습니다.

- 1. 전공자, 유경험자 한함
- 2. 목요 찬양예배, 주일 예배

자기 소개서 보내실 곳

dsbio@yahoo.com
기타문의 213.300.9762



사람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꿈이 있는 공동체
올리브나무교회
Olive Tree Church (OTC)

300 S. WESTERN AVE LA CA 90020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담교회' 담임목사



목사안수나 편목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청지기목회자학교에서는 PCA, CRC, PCUSA, RCA, ECA, SBC 등 미국내 교단 안수 신청과 편목 서류를 도와 드리고 아울러 영어 인터뷰 때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한 영어구사 표현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 1. 미국교단 안수 및 편목 지원방법과 관련서류 작성법 강의
 - 2. 미군군목(육군, 해군, 공군, 해병 등) 지원서류 접수대행 및 인터뷰 과정 강의
 - 3. 병원 원목(CPE) 프로그램 강의
 - 4. 교회설립과 주 정부 등록 그리고 비영리 등록 강의
 - 5. 교회 개척에 필요한 "One Stop Planting" 강의
 - 6. 선교 가시는 분들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 강의
-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 그리고 목회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분들은 전화 상담이나 예약방문을 권합니다

가을 강의 10월 19~21일

USCRC Pastoral Education(청지기목회자학교)

Tel(310)502-9999
2850 Ocean blvd #200, Santa Monica, CA 90405

인생의 짐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물건은 거의 평생을 같이 해온 지식 같은 것들인데 어떻게 고민 없이 버릴 수 있겠는가?

신혼여행 때의 일이 생각한다. 신혼여행을 위하여 짐을 챙겼더니 작지 않는 가방 두 개였다. 여행용 짐을 챙기는 요령이 없는데다 패백을 못했던 터라 신혼여행을 마치고 향에 들러 친척들에게 인사를 할 요량으로 한복까지 넣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거기에 제주에서 여행 중에 친구 누나를 만나 짐을 하나 더했다. 막 따낸 귀한 것이라며 주시는 바람에 감글 한 박스가 더 늘어난 것이다.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작지 않은 가방 두 개에 감글 한 박스를 끌고 신혼여행 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설상가상이랄

까? 그 짐들을 챙기느라 사진관에서 빌려간 당시 내 월급 3배 정도 되는 카메라를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카메라는 물론이고 신혼여행이란 아련한 추억까지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 카메라 값을 몇 달에 걸쳐 갚느라고 고생한 것까지 신혼여행 때의 짐은 나를 두고두고 힘들게 하였다. 그때 내가 확실히 배운 교훈이 하나 있다. 여행을 할 때는 짐을 가볍게 챙겨야 한다는 진리(?)였다. 하지만 인생의 짐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죄의 짐, 근심 걱정의 짐, 어떤 때 동서양의 모든 짐까지 짊어지고 끄꿍댄다.

나도 모르게 짐착이 버릇처럼 일어난 때마다 위의 교훈을 떠올리며 짐을 줄이려고 노력 하지만 그놈의 욕심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한다. 주님이 당신께 맡기고 배우고 당신으로 인해 가볍게 살라 하시니 이제 주님께 가지고 가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게 될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능력 있는 말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말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말을 조심해서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말이다.

말할 때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감사한 말, 사랑한다는 말 등을 많이 하고 싶은데 만나는 사람들의 하는 모양을 보면 그 말이 속 들어가고 오히려 미운 말, 욕된 말, 싫어하는 말 이 저절로 튀어 나온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스스로 포기하면서 말을 고치려 하다가 보다는 내 인생 그저 그저 살지 한다.

말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말은 환상이 아니다. 말은 꿈이 아니다.

날마다 현실에서 부딪히며 말하고 말을 듣는다.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살고 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말하는 습관은 우리의 숙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말을 구별해서 복된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일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고치고 말을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항상 꾸준히 기도함으로 말을 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말, 치료의 말, 생명의 말을 하자.

어느 교회에 말이 몹시 거칠고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수다쟁이 교우 한 분이, 어느날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이제는 정말로 제 혀를 주님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한다. “성도님의 혀를 받아들이 만큼 그렇게 큰 제단이 없군요.”

이처럼 우리의 혀는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귀는 두 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다. 두 개 만든 귀는 언제나 그 문이 열려 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많이 듣고 살기 위함이다.

하나를 만든 입술은 방어벽을 두 개 두었다. 혀를 깊숙이 숨겨두고 이빨 벽을 두고 그 앞에 입술로 문을 달아 두었다. 많은 말을 하면 손

해 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민수기14:28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성품 그리고 인격을 걸고 맹세하는 한 말씀이 나온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신구약 성경에 이 만한 강조어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맹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하신 맹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삶을 걸고 한 맹세이기 때문이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일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생각해 보자. 소름끼치지 않는가? 누가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다. 산다고 말하면 살고, 잘 된다고 말하면 잘 된다는 것이다.

말은 사람을 치유한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良藥)과 같으니라”(잠12:18)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라”(잠15:4)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영약이 되느니라”(잠13:17)

혀에는 죽고 사는 능력이 있다. 말은 치료하는 약과 같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름을 기억 못하는 목사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항상 짝이 날 때마다 새로 오신 분들의 사진을 보며 성함을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막상 얼굴을 보면 이름이 가물가물해진다.

어느날, 우리 교회 권사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 권사님은 늘 밝고 환한 미소를 가지신 권사님이다. 지금은 권사님의 성함을 잘 기억하고 있지만, 예전에 강단에서 제자훈련 받은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격려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의 성함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은 분이 지켜보는 공개 석상에서 성함을 여쭙어 볼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아마, 많은 분이 ‘목사님이 어떻

게 이름도 모르시냐?’고 섭섭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식사하시면서, 그 때 이야기를 꺼내셨다. “아이고, 한 말씀 들겠구나!”하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다. “저는 그때 목사님이 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이 분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분이구나! 이 분은 사람에게 연연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목상하며 하나님만 전하실 목사님이구나.”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 황송한 한편, 죄송하기도 했다.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목회엔디캡이 오히려 ‘하나님만 생각하는 목사’로 바뀐 것이다.

권사님과 식사하는 많은 여운으로 남아 지금도 맛있는 디저트를 향기나는 커피와 함께 먹는 느낌이다.

목회는 사람 이름 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신 권사님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리고 싶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에 임하며, 성경책을 펴든다.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복음으로 지구촌 교회들 섬기는 것이 꿈”

■ 겨자씨성경연구원 원장 김선웅 목사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앙에 뿌리를 둔 겨자씨성경연구원(Mustard Seed Bible Institute · 원장 김선웅 목사)이 활동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MSBI의 김선웅 원장은 '갈라디아서-오직 하나의 복음'에 이어 최근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 '로마서(상)-온 세상을 향한 주 예수의 복음'을 발간하고 12일(한국 시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새행복교회 본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곧 서울과 필리핀에서 평신도들과 한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갈라디아서 특강도 갖는다. 김 원장은 “우리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돕는 것이다. 모든 교회들이 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성숙과 영광을 경험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먼저 자기소개를 해 달라.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과 국제개혁대학대학원에서 M.Div.를 받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1,000회 이상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한 경험이 있다. 첫 담임목회 사역지였던 에덴장로교회에서 7년간 섬긴 후 안식년을 맞았던 2012년 말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교회를 사임하고 UCI병원에서 1년간 투병생활을 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에 2013년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활발한 연구원 사역을 하게 되었다.”

겨자씨성경연구원의 탄생 배경은.
“겨자씨성경연구원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 2012년 7월 남가주에서 탄생했다. 태동은 훨씬 전인 2001년 7월 에스라성경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였다.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복음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조용히 일해 왔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올해 2월에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갈라디아서 성경공부 교재 출판기념회를 겸한 자리였다.”
연구원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뚜렷한 비전과 사명을 품고 활동한다. 비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명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해 은혜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다. 비전을 성취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복음, 섬김, 통합, 변화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정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7대 사역에 집중한다. 첫째는 목회자들이 함께 성경연구와 신학연구를 한다.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에베소서 연구를 끝내고 지금은 로마서를 연구중이다. 둘째는 말씀사역이다. 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달려가 우리가 개발한 자료들을 기꺼이 나눈다. 셋째는 교회 공동체사역이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참된 교회의 이론과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교회에 연구원 목사를 파송하여 상담하고 지도한다. 넷째는 세미나 사역이다. 학문과 목회의 균형을 갖춘 학자들을 초청, 분기별 세미나를 연다. 다섯째는 신학교 사역이다. 우선은 남가주 한인 신학교들에 건강한 신학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해외 신학교들의 강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한다. 여섯째는 교재개발 사역이다. 7개년 계획으로 신약 성경공부 시리즈를 편찬 중이다. 일곱째는 출판 사역이다. 자매 기관인 겨자씨서원을 통해 성경연구 서적을 내고 있다.”
특별히 성경공부 교재를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상편이 나왔고 내년 2월에는 요한계시록이 출판될 예정이다. 큰 그림을 소개하자면, 복음 시리즈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등을, 교회 시리즈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등을, 인물 시리즈로 아브라함, 야곱, 느헤미야, 모세, 다윗 등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가 많은데 왜 새로운 교재가 필요한가.
“지금까지 나온 교재는 대부분 질문밖에 없거나 부록으로 간략한 인도자 교재가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 교재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필됐다. 교회성장이나 자기중심적, 도덕적 교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본문에 충실하면서 생활

목회자 성경공부 통해 깊은 연구 갈라디아서 소그룹 교재에 이어 최근에는 로마서도 발간 큰 호응
교회와 복음의 본질 회복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비전
말씀 깊이 연구해 은혜 나눌 것

속에서 적용가능한 성경적, 복음적 답을 제시한다는 점이 다르다. 한국 성서유니온 ‘묵상과 설교’ 편집장 박대영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건건하고 믿을 만한 책이다. 사회자만 있으면 어떤 그룹이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교재가 나오기를 오래 기다려 왔다’고 평하신 바 있다.”
목회자들의 입상을 거쳐 나온 책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 겨자씨성경연구원은 월요일 오후 7-9시 라하브라의 연구원 사무실, 화요일 오후 7-9시 LA 소망장로교회에서 목회자 성경공부모임을 갖고 있다. 약 30명이 동참하는 이 모임이 성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절실한 필요에 맞는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로마서 상편을 내는데 얼마의 준비기간이 필요했는지.
“출판기념회가 끝난 뒤 어떤 분이 어떻게 갈라디아서에 이어 8개월만에 로마서를 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실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어거스틴에서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요한 웨슬리, 칼 바르트, 존 스타트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쓴 로마서에 관한 책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 '로마서'를 최근 낸 겨자씨성경연구원 원장 김선웅 목사.

2만여 페이지를 읽었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또 지난 봄학기에 국제개혁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로마서를 최종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목회자 성경공부 모임에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복음이 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에 집중할 수 있었다.”

교재를 쓰면서 새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구원받는 데 우리의 의를 보태려는 생각이 은근히 기승을 부리는 율법적인 시대다.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너무 모호하게 가르친다. 하지만 로마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이 가능하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목, 죄로부터의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누리며, 성령을 통해 은혜로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 가능함을 말한다. 교재를 만드는 동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구약 전체의 구원의 여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신도들을 위한 성경공부 등의 활동 계획은.
“처음에는 목회자 성경공부 외에 평신도 성경공부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몸이 감당하기 어려워 목회자 양육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직접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출장강의를 통해 평신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나침반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등이 제가 지은 갈라디아서를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일반 교재의 피상적 접근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모든 씨보다 작고 연약한 겨자씨’와 같은 우리 연구원을 통해 드러나길 기대한다.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과제지만 결코 혼자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 뜻있는 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기를 소망한다.”
문의: msbiworld.org, 714-234-6607
김장섭 전문위원



최근 서울에서 열린 로마서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가 저자 김선웅 목사.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징: Sem 1-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회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솔로몬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I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령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p>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진 박사, 이사장: 김광민 목사</p> <p>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박성구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정영희 담임목사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박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8일 한기총과 한장총 이영훈·황수원(오른쪽에서 네 번째부터) 대표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교과서 기독교 공정서술을 촉구하던 모습.

“국정교과서 채택 지지”

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회원교단 및 단체 154곳도 뜻 함께 해

‘한국기독교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더 이상 좌편향된 교과서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지지했다.

대책위에는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교단 및 단체 154곳도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한국의 근대사를 좌파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 교과서들은 해방 후 한국사의 출발을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두고, 소련은 해방군이지만 미군은 점령군이며, 대한민국 건국이 조국 분단의 원흉이고, 북한은 자주 국가이지만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한 것임을 밝히기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이런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

특히 대책위는 “한국 기독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형성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항 이후 기독교는 서구문명이 이 땅에 전달되는 통로였고, 일제 암흑기에는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가 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특히 해방 후 많은 사람들이 이념의 혼란 가운데 우왕좌왕할 때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노력했고, 이후에도 산업화와 민주화·국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적으로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북한 공산주의보다 월등한 체제임이 입증됐음에도,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마치 북한에 한민족의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것이 한국사회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약화시켰다”며 “더욱 기막힌 것은 이 같은 잘못된 생각의 근원지가 바로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라는 점”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한국 기독교는 한국사 교과서의 이 같은 실태를 목도하면서, 더 이상 한국사 교육을 진보좌파 역사학자와 교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교과서 정책을 지지하고, 이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발전 과정을 바로 기술해, 역사 문제로 인한 한국사회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역사학자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없다면 국정화도, 검인정 제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둘째로는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아니라, 특정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에 집필 당시 정부에 대한 서술은 배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는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바로 교육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머지 않아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자”고 간절히 촉구했다.

이대웅 기자

“광복 70주년과 신앙독립운동가 웨슬리”

제31차 웨슬리안 국내선교대회 개최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선서하고 있다.

한국웨슬리안교회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원팔원 목사)는 11일 저녁 수원 오목천교회(담임 김철한 목사)에서 ‘광복 70주년과 신앙독립운동가 웨슬리’를 주제로 제31차 웨슬리안 국내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예수교대한성결교회·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구세군대한분영·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 등 웨슬리의 신학에 뿌리를 둔 6개 교단 소속 교회 지도자들이 2007년 설립했다.

‘신앙독립운동가 웨슬리’(딤후 4:7)라는 주제로 설교한 양기성 목사는 “한국 교회에는 1천만이 넘는 크리스천이 있지만 진정으로 본받고 싶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며 “웨슬리는 옥스포드 교수직과 국교회 사제직 등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며 술집과 장녀촌과 광산촌을 변화시켜 영국사회를 개혁했다”고 역설했다.

김철한 목사는 “전 세계 사회와 교회가 다 분열돼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모두를 붙들고 있는 웨슬리의 신앙이야말로 이를 통합시킬 수 있다”고, 주삼석 목사는 “웨슬리가 있는 곳에는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사라지고 뜨겁게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웨슬리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삼석 목사는 “웨슬리는 루터나 칼빈처럼 교리를 갖고 씨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온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었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아.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다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유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인과도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외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개신교 선교 인물사(3)

허드슨 테일러 (1832-1905)

개신교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을 현대 선교의 역사적 관점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오늘날의 선교전략 연구 및 실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자료는 양태철 목사(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제공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허드슨 테일러 (James Hudson Taylor)

허드슨 테일러(James Hudson Taylor, 중국명 戴德生(대덕생))는 '중국 내륙선교의 개척자', '믿음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며,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1 - 1834)에 의한 '해안 선교 시대'를 이은 '내륙 선교시대'를 연, 19세기의 괄목(刮目)할만한 선교사라 불 수 있다.

현대선교의 이론적 정리에 큰 역할을 했던 랄프 윌프(Ralph Dana Winter, 1924-2009)는 테일러(Taylor) 선교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More than any other human being, James Hudson Taylor, ...mad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cause of world mission in the 19th century.", 19세기 세계선교가 있게 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로 볼 수 있다 <필자의 의견>).

중국에 거주하면서 사역한 기간은 1854년부터, 그가 중국 호남성에서 1905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총 51년의 기간 중, 만 27년간이 되었다. 그 중, 1895년에는 중국 전역에서 사역하는 CIM(China Inland Mission, 중국내지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641명에 이르렀고, 중국인 현지 조력 사역자가 462명이 되었으며, 이들이 중국 전체에 260개의 지부를 형성하여 복음을 전파하였다. 또한 테일러(Taylor)가 소천하는 해인 1905년에는 800명의 선교사가 205개 지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으며, 중국 전역에 125,000명의 중국인 기독교인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1914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회가 되었고, CIM 선교회의 최대 전성기인 1934년에는 1,386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테일러(Taylor)의 중국 선교는 다음의 7가지 관점에서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에게 귀감(龜鑑) 된다고 보며, 이에 ①부모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 ②선교사로서의 철저한 준비, ③선교사의 철저한 선교지 적응, ④선교지에서의 철저한 팀 사역, ⑤선교사의 철저한 믿음선교의 자세, ⑥선교사의 전략적 선교(교육선교 및 미전도 종족 선교), ⑦선교사의 불굴(不屈)의 헌신(獻身)을 들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으로써, 테일러(Taylor)의 부모인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와 아멜리아 허드슨(Amelia Hudson)은 테일러(Taylor)를 회임(懷妊)했을 때부터, 그가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길 기도하였다. 둘째, 선교사로서의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테일러(Taylor)는 의학과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함과 동시에, 생활습관을 열악한 중국 선교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절제되고 힘든 생활을 통하여 선교사의 길을 스스로 준비하였다. 셋째, 테일러(Taylor)는 철저한 현지 적응화(identification, assimilation, cultural accommodation, adoption, indigeneousness, localization)를 위하여, 변발(辮髮)을 하고, 모든 생활을 중국 현지인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선교지에서의 철저한 팀 사역을 위하여, 테일러(Taylor)는 1865년에 중국내지선교회(CIM, China Inland Mission)을 세워서 함께 팀 사역을 하

였으며, 1964년에 그 명칭이 OMF(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로 변경되어, 오늘날에도 중국 및 중화권 선교를 활발히 감당하게 하는 계기(契機)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선교사의 철저(徹底)한 믿음선교(faith mission)의 대표적인 예를, 테일러(Taylor)는 특별히 CIM을 설립한 1865년부터 잘 보여주었다. 그 일례로, 그가 소천하게 되는 1905년까지 40년간, 누가 보내준 헌금인지도 모르는 헌금의 액수인 약 20만 영국 파운드(오늘날의 화폐가치로 약 2,500만 달러)로 선교를 잘 감당할 것을 들 수 있다. 여섯째, 테일러(Taylor)는 그 당시 해안지역 외의 내륙지역의 미전도 종족들에게의 선교를 강조함과 동시에, 교육선교를 강조하며, 그대로 실행하였다. 일곱째, 테일러(Taylor)는 선교지에서 4명의 자녀와 아내를 잃는 아픔과 1900년의 '의화단 사건'(Boxer의 난)으로 인하여, 58명의 CIM 소속 선교사와 21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피살되는 아픔가운데에서도, 끝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내륙선교의 개척자, 믿음 선교의 아버지로 불린다.

까지 포기(拋棄)하지 않고, 불굴(不屈)의 헌신으로 선교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다. 대만의 은혜신학교와 중국 본토에 위치한 3곳의 은혜신학교를 비롯, 여타의 신학교를 통하여,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와 같은 헌신된 수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므로 인하여, 15억이 넘는 중국 본토인들의 복음화와 전 세계에 산재(散在)한 7천만 명(대만의 2,400만 명 포함)이 넘는 화교 디아스포라들의 복음화 및 전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양태철 목사 GMI(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이슬람, 어떻게 포용하고 선교해야 하나

제14회 의료선교대회 '비정상선교회담1' 서 논의

(사)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회장 박상은) 주최 '제14회 의료선교대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분당 만나교회(담임 김병삼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선교대회는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따온 "너는 나를 따라라!"(You! Follow Me!)는 주제로 열리며, 인티서브 전 총재 폴 벤더 사무엘 박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남서울교회 화중부 목사, 은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등이 주강사로 나섰다.

특히 9일 오후에는 '이슬람에 대해 어떻게 포용하고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비정상선교회담1'이 진행됐다. 이 자리는 이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이를

의료선교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원민 목사가 사회를 맡고, 채숙향 선교사(P국간호사), 이정석 선교사(중동국가치과의사), 김성운 교수(고신대, 전 터키 선교사), 정마태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 파키스탄 선교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성운 교수는 "종교의 일치와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같은 곳에서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같다'는 이야기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다. 이슬람 학자들 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3위 중 '성자 하나님'이라는 부분에서 부딪힌다"고 했다.

이어 "98%는 비슷하나 2%는 정말 다르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 여기에서 다른 것들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을 '유사기독교'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을 바라보는 양 극단의 시각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공통적인 내용들을 무

슬림을 향해 개방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날 사리아를 가져와 참석자들에게 보여준 정마태 선교사는 "비교 연구할 때, 무슬림이 무슬림 입장에서 우리의 성경을 해석하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가 꾸란을 보는 것에 대해 똑같이 이야기한다. 무슬림 학자들과 다시 꾸란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선교사는 또한 "이슬람의 인간론은 성선설이다. 이슬람 학자들은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간은 종교적·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알라의 규율을 실천할 수 있는 구속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본다. 반대로 하디스에는 인간의 마음이 죄에 물들어 있으며 타락했다고, 꾸란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나와 있다. 꼭 성선설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무함마드가 중재자로 나선다. 그러나 무함마드도 죄가 있는 단순

한 인간으로 나온다. 꾸란과 하디스에 따르면,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선행에 따라 결정된다. 꼭 선행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믿음을 주는 존재가 알라라는 것이 꾸란에도 나와 있다. 기독교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숙향 선교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십자가는 타협이 아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잃은 양은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 이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힌두교인과 불교인 등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똑같이 잃은 양이다. 파키스탄에서 감감한 어두움을 보았다. 파키스탄 내 병원이 등대와 빛의 역할을 해야 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가을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9월 18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권혁승 칼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 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빌 2:13-14)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다. 그래서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히브리적 사고이다. 중생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복을 주시는 분도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도 되시면서 또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사화복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다(살전 5:16-18).

잘 살아보겠다고 모양으로 이민을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맞아 주는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 불려 달라고 부탁한다. ‘나오미’는 ‘즐거움’이고, ‘마라’는 ‘쓰디’는 뜻으로 ‘괴로움’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나오

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룻 1:20)고 호소하였다. 이는 나오미가 모압에서 겪었던 어려움 즉 남편 엘리엘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죽음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다. 그것은 또한 저주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기에도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기대이기도 하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내린 저주를 풀어 나가시는 과정을 소상하게 소개하는 책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통해서’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활용하신다는 의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뜻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텔로



권혁승 교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는 ‘마음이 내키게 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지로 일하게 하지 않으신다. 일을 하게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키신다. 때로는 분명하게 지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영성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이다. 그렇게 하려면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것이 곧 영성지수를 높이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기쁘신 뜻’으로 번역된 헬라

어 ‘유도키아’는 ‘잔동’ ‘호의’ ‘의도’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는 ‘라촌’인데, ‘즐거움’ 혹은 ‘만족’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흡족함과 즐거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만족하심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즐거움과 행복을 되돌려 주시는 근거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곧 우리의 행복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인생의 최고 우선적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먼저이겠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다. 순서가 바르면 바른 신앙이 되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신앙의 역행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수반되는 것이다.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도 마련해 주신다. 우리들이 은사를 따라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재시켜 놓으신 원천적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원망’에 해당하는 헬라어 ‘공귀스모스’는 불만을 속으로 억누르는 ‘투덜거림’이다. 일 자체에 대해 의미나 보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흡족함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시비’로 번역된 헬라어 ‘디알로기스모스’는 기본적으로 ‘논쟁’을 의미하지만, ‘의심’이나 ‘망설임’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다. 다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므로 인하여 생긴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감사와 확신으로 하라’는 것과 상통한다. ‘감사’와 ‘확신’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내적 증거인 셈이다. 그렇다면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심으로 일하는 증거가 아닐까?

● 행복 칼럼

살아남아야 희망도 있으니

최근 한 자료를 접하고 몹시 마음이 아프고 어지러웠다.

보건복지부 통계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7만 1,916명이며, 이는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사망자(민간인+연합군) 수보다 2-5배 많다. 이라크전쟁 사망자 3만 8,625명보다 약 2배, 아프가니스탄전쟁 사망자 1만 4,719명에 비하면 약 5배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10만명당 자살률 29.1명으로, OECD 평균 12.0명보다 훨씬 높다.

너무 많은 자살 사건을 접하게 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누가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예전처럼 놀라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것 같다.

자살을 막지 못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두의 책임이다. 또한 종교적 관점에서는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고 해결 방안

을 모색한다면 점차 자살율은 줄어들 것이다.

인품이 훌륭하고 신앙심이 깊은 노년의 어느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제가 이런 아픔을 겪기 전에는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들을 비난했고 이해하지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찾아 온 심한 우울 불안 증세가 두 세 달 이어지면서, 왜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으면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자신이 그 정도의 아픔을 앓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가을의 따사로운 햇살과 단풍의 아름다움이 온 산을 뒤덮어도 마음에는 별이 들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치유되지 않고 쌓여만 온 깊은 상처는, 낫지 않고 종기가 되고 암덩어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은 어둠 속에서 마비되고 미래는 절망적인 생각 속으로 침잠해 들어



강선영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가면서 점점 생명까지 빼앗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한도 내에서 타인을 가늠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아픔을 많이 겪고 극복해낸 사람이 현재 아픔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수의 자살자들이 있는 이런 나라를 훌륭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삶이 팍팍하고 다들 힘들다 보니,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도 너무 적다. 부모도 자식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부부도 서로 간에 보듬어 주지 않는다. 어디에 마음을 두

고 살아야 할지 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 방법을 찾고 있는 이들이 많다.

살아 있어야 희망도 있다. 죽어 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너무 아픈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희망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우선 살아만 있어 보자. 그래서 고통을 살아내 보자. 고통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며, 인간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해도, 혹시라도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자살한 이후에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어떡하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존귀한 자신을 스스로 살해하는 것은 분명히 죄다.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감지하게 된다면, 반드시 자신이 큰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야 한다.

병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없이 자살 행동을 취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야 하고 심리치료도 받아야 한다. 가만 있으면 정말 자살할지도 모른다. 자살은 용기

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신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흘려 듣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어 주고, 세상에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바란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다. 자살로 잃는 목숨이 더 이상 없기를 기도한다. 나 역시 살아 있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역시 살아 있어야, 머지 않은 미래에 기쁨과 감사 속에서 지난날을 회상하는 당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더디게 올지라도 분명히 온다고 믿고, 살아서 치유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 주는 그리스도 인들도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비난과 악플에 목숨 걸지 말고 함께 가슴 아파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괴로움 속에서 죽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부디 살아서 희망을 노래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비염과
코 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희망의 신비

신시아 부조 | 비아 | 136쪽

부제 '거룩한 자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정(Mystical Hope)'. 체념과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짚는다. 성공회 사제로서 기독교 영성을 가르치는 저자는 아홉 배미 등 고전 영성가에게서 토머스 머튼과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같은 현대 영성가, 욕기와 소설, 시 등에서 길어낸 '희망'에 대해 잔잔한 필체로 들려 주고 있다.



복클럽의 비밀

이인희 | 예영 | 200쪽

꿈의학교 독서 교사인 저자가 청소년을 위해 쓴 올바른 독서법. 책 읽기를 좋아했던 '서연이'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거지아찌'라는 가상 인물을 통해, 흥미롭고 사실적인 이야기로 방법론을 풀어놓았다. 저자는 '책을 좋아하다'의 반대말이 '책을 좋아했다'며, 잘못된 독서에 대한 'TEACH' 개념을 올바르게 바꿔 즐거운 독서 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천상의 복음

엄승용 | 예찬사 | 164쪽

산상수훈 중 마태복음 5장 강해서이다. '팔복'이라는 파격적 가르침을 시작으로, 이 팔복의 관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려 준다. 책은 팔복을 여덟 개의 계단으로 된 사다리에 비유하면서, 사다리를 오르듯 각 가르침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나를 일으키는 백만가지 방법

에밀리 프리먼 | 포북 | 320쪽

'나는 왜 지어졌을까?', '내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등, 신앙생활 중 흔히 갖는 소소한 질문들에 대해 12가지 동사를 소재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이 드러나길 지금도 원하신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순간, 기적처럼 내 삶에 변화가 시작된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선택' 갈림길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선택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열린문... 선택훈련은 곧 믿음훈련

"짧은 인생, 하루에도 술한 갈림길 앞에 선다.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복이다. 정답을 찾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냐가 문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번 문인데 내가 2번 문을 선택하면 어찌지? 실패하면 어찌지? 후회하면 어찌지? 왜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보여 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 책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반드시 가장 좋은 것, 가장 올바른 것, 가장 최선의 것,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뜻을 골라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이다.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필력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존 오트버그 목사의 신간으로, 매사에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유형, 혹은 작은 결정에도 지나치게 망설이는 유형, 또 무엇을 택하든 늘 후회하는 유형 등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성경적 지혜와 실제적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 선택에 대한 각종 미신들이 있다. '진짜 열린 문이라면 앞으로 삶은 쉬워지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열린 문이란 영적으로 화려한 일을 하기 위한 기회다, 어떤 결정에는 하나의 옳은 문만 존재한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문으로 날 억지로 집어넣지는 않으신



선택훈련
존 오트버그
두란노 | 312쪽

다, 한 번 잘못된 문을 선택하면 날 향한 하나님 뜻을 영원히 놓칠 것이다, 어떤 문은 너무 꽁꽁 닫혀서 하나님도 절대 여실 수 없다' 등.

이런 미신들이 결정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결정장애 크리스천을 양산했다.

이 책은 이런 미신들을 타파한다. 그리고 열린 문을 알아보고 그곳으로 들어가기에 훈련하라고 권면한다. 매일 우리 앞에 어떤 식으로든 기회가 펼쳐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열린 문'이다. 들어가 본 사람만 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기에, 모든 열린 문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선택훈련은 곧 믿음훈련이기도 하다.

이 책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성경

을 구석구석 파헤쳐, 결코 쉽지 않았고 준비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열린 문을 택해 걸어간 인물들을 집중 조명한다. 현대적으로 푼 성경 속 실화들을 통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회들을 알아보는 법,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극복하는 법, 거대한 인생의 벽앞에서 있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문을 찾아야 할 이유 등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어떤 문인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들어가느냐, 또 어떤 태도로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는 닫힌 문도 하나님의 복이다!

이영인 기자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리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251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꽃씨

을 열어주소서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청중들 뇌리에 '그림'으로 남는 설교를 하려면

성경 인물들과
예수님의 언어 특성 분석
청중의 가슴 뛰게 하는 설교

김진규 교수(백석대)가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우다>를 최근 펴냈다.

저자는 '청중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생생한 설교 언어'를 주제로, 지식 전달 중심의 강연과 달리 감동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야 하는 '설교'만의 특성에 대한 답을 히브리 시인들이 사용한 언어에서 찾고 있다.

김 교수는 구약 시가서 전공자로 "히브리 시(詩)라고 하면 구약성경의 시편과 잠언 등 시가서들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선지서들도 대부분의 시의 문체로 돼 있다"며 "히브리 시의 두드러진 3대 특성은 그림 언어(이미지), 대구법과 생략법인데, 이러한 특징은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자는 생동감과 생명력을 살리는 특징은 '그림 언어'(이미지)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림 언어'란 듣는 사람 각자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표현되는 말을 가리킨다. 저명 설교가 워런 W. 위어스비는 그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우다
김진규
생명의말씀사 | 360쪽

림 언어가 청중의 생동감과 생명력을 유발하는 이유로 '인간의 근본적 이해 방식'을 지적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고 쓸 때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생각할 때는 영상이나 그림을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저자는 책을 통해 성경 속 '그림 언어'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특히 현 시대에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그림 언어' 사용을 성경으로만 제한해선 안 되며, 수많은 이미지들을 현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생동감이 '그림 언어'에 달려 있다면, 감동과 감화는 '대구법'에 비결이 있다.

이에 저자는 지금까지 설교학자들이 강조한 단순한 대구법 분류를 넘어, 성서학 최첨단의 이론을 도입해 여러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문 분석을 통해 어휘적-의미론적, 문법적, 음성학적 대구법 등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3부로 이뤄진 책 각 부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경 속 인물들과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문을 분석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그림 언어'와 '대구법'에 대해 보여 준다.

저자는 "오늘날 사람들은 TV,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수천 수만 장의 그림들을 머리에 새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 속에 그려진 그림들을 바꿔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며 "청중들의 뇌리에 새겨진 그림들을 바꾸려면 이들 마음속 영상들을 능가하는 그림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그들의 마음속 그림이 바뀌고 메시지가 전달되며, 이를 통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에는 성서학자 웨스트몬트 대학 트램퍼 롱맨 3세 교수를 비롯해 이동원·홍정길·류영렬 목사, 류호준·신성욱 교수 등이 추천사를 썼다.

이대웅 기자

“역동적 예배 드리며 소명에 헌신케 해”

LA 킹덤드림콘서트 17일 벨라스코극장



킹덤드림콘서트에서 찬양 중인 천관웅 목사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간다면, 그들이 헌신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킹덤드림콘서트가 미 서부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들고 상륙했다.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명을 향해 헌신케 하기 위해서다. 이 콘서트는 2011년 천관웅 목사가 한 선교사로부터 청년 부흥에의 도전을 받아 시작했다. 그 해에 9번의 집회가 한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열리며 총 5만 명이 참석했고 7천2백 명이 목회자와 선교사로 헌신을 약속했다. 그는 “다 죽은 줄 알았던, 곳곳에 숨어있던 청년들이 헌신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천 목사는 한국컨티넨탈싱어즈의 보컬과 지휘자를 역임했으며 디사이플스를 이끌며 찬양인도자로도 사역했다. 2003년 솔로 데뷔 후 모던위십의 선두주자로 꼽히며 1집부터 'Jesus Generation', '겸손의 왕'에 이어 '밀알', '불을 내려 주소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그가 갑자기 적박한 청년 연합 사역에 달려든 것은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다.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떠난 청년들, 교회는 다니지만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킹덤드림콘서트에 불을 붙였다.

천 목사는 이 콘서트의 2가지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것, 청년들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 헌신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약 5시간에 걸친 예배 동

안 청년들은 회개를 경험하고 소명을 발견하며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 그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도 이 꿈을 나누고자 LA에 왔다”고 강조했다.

킹덤드림콘서트의 특징은 모든 사역이 자비량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행사를 초청하는 특정 교회나 단체로부터 후원 받지 않는 대신 킹덤드림 비전에 함께 하는 이들이 후원하는 형식으로 행사 비용을 마련한다. 라스베가스, LA, 산호세에서 열리는 미 서부 집회의 스태프만 29명이다. 이들의 항공료와 숙식비, 공연 장소 및 장비 렌탈 비용이 모두 모금으로 충당됐다.

이들은 이미 10월 10일(토) 라스베가스 클락카운티 도서관 극장과 11일(주일) 아름다운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집회를 마쳤으며 17일(토) 오후 2시 LA 다운타운 벨라스코극장에서 킹덤드림콘서트, 18일(주일) 오후 4시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에서 킹덤드림선교집회를 앞두고 있다. 킹덤드림콘서트는 교회를 떠난 청년이나 불신자 청년들까지 초청하기 위해 일부러 교회가 아닌 벨라스코극장으로 장소를 결정했다. 킹덤드림콘서트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행사이며 킹덤드림선교집회는 선교 헌신자를 위한 집회다.

복가주 산호세에서도 24일(토) 오후 6시 주빌리크리스천센터와 25일(주일) 오후 6시 뉴비전교회에서 각각 킹덤드림콘서트와 선교집회가 있다.

김준형 기자

‘조선에 온 작은 예수’ 손양원이 즐겨 부른 찬송가들

CCM 사역자들 참여
'손양원 찬송가' 발매

'사랑의 원자탄' 순교자 산돌 손양원 목사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 10곡을 모은 '손양원 찬송가'가 발매됐다.

이번 찬송가 앨범에는 여러 CCM 사역자들이 동참했다. 양아린이 타이틀곡으로 첫 트랙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시작으로, '이 몸에 소망 무엔가'(김경현), '환난과 핍박 중에도'(주리), '웬 말인가 날 위하여'(B2E), '내 평생 소원 이것 뿐'(김만희),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축복의 사람이, 울어도 못하네'(LAST), 시 각장애인 김하은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등을, 그리고 여러 가수들이 함께 마지막 곡 '만세 반석 열린 곳에'를 열창했다.

특히 손양원 목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에서 손 목사 역할 목소리로 참여한 배우 이광기가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를 불렀다.

또 이번 앨범에는 10곡의 찬송가와 관련된 손 목사의 진솔한 이야기



와 신앙고백이 함께 실려 있다. 첫 곡이자 타이틀 곡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은 손양원 목사가 청주 교도소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부른 찬송이다. 교도소에서는 손 목사를 치료하기는커녕 시체실에 버렸고, 겨우 의식을 되찾은 손 목사는 '아,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구나'라며 고맙고 감사해 이 찬송을 온 마음 다해 불렀다고 한다. 이후 손 목사는 병이 깨끗하게 나아 다시 감방으로 옮겨졌다.

'이 몸에 소망 무엔가'는 6·25 당시 성도들과 함께 부르던 찬송이고, 학생들과 소풍을 가서 힘차게 부르던 찬송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이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는 그가 순교를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때 늘 부르던 곡이다. 여순 반란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이 끝난 후 힘차게 부른 찬송은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이고,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늘 부르던 곡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였다.

한센인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나누고 돌아오면 사모가 때때로 잔소리를 했는데, 이때 울면서 부른 찬송이 '내 평생 소원 이것 뿐'이었다. 그가 가장 무서워했던 '죄'를 생각하면서 부르던 찬송은 '울어도 못하네', 순교 장소로 끌려가면서 불렀던 곡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일제의 핍박과 6·25라는 환난 속에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던 찬송은 '만세 반석 열린 곳에'였다.

이번 '손양원 찬송가' 앨범 수익금 중 일부는, 손 목사가 섬겼던 전 세계 한센인을 돕는 사역에 쓰일 예정이다. 앨범을 제작한 GIL뮤직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셨고, 평생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셨던 손양원 목사님도 소록도 한센인들과 함께하셨다"며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2015년 예수님의 기도학교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백—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것처럼
성도들은 영적리더를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영적리더가 되십시오

일자

2015년 11월 9일(월 저녁)~13일(금 오전)

강사

크리스 해리슨 목사 _ 깊은 기도와 말씀사역의 내적치유 강사
이영환 목사 _ 기도와 전도로 부흥하는 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목사
고승희 목사 _ 중보기도로 가정을 회복하는 LA 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

“나의 기도의 삶” 특강

영희 맥도널드 목사 _ 예수님과 동행하는 덴버 교도소 채플린
박신일 목사 _ 기도로 꿈을 이루어가는 목회자(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
박현승 목사 _ 금식과 철야로 영적성경을 하는 목회자(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성현경 목사 _ 기도로 시대를 보는 목회자(뉴저지 가스펠헬로십교회)

장소 / 밴쿠버

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re
12969 Crescent Road, Surrey, BC V4P1J8 Canada
밴쿠버 도착: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YVR)

등록문의

admin.ictc@gmail.com
Katala/prayingforspain



후원 : 기독일보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우드 제의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제책, 번역등전체 전문
www.junimedia.com

전도용품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영범음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시디영범음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시디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서 **각종영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니 필요시도 문의 가능합니다!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무료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노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천연영양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탄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굵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0% APR & No Payments For 90 Days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Looking Beyond the Model and Into the Substance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 Reverend Steve Choi

BY RACHAEL LEE

"Which is the best model for the Korean immigrant or Korean American church?" is a question to which pastors, ministers, and lay leaders have discussed possible answers for decades. But according to Reverend Steve Choi of Crossway Community Church, perhaps more important than an external factor like a church model are the internal factors such as the church leaders' faithfulness to their work.

Choi and a group of some 40 people planted Crossway together eight years ago as an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commissioned by Sa-Rang Community Church, at which Choi previously served as the English ministry (EM) pastor. Today, Crossway has two church sites in Brea and Irvine, which together consists of some 700 members of various ethnic backgrounds, mostly pan-Asian.

However, though the context is different, some challenges Choi and the leadership of Crossway faced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For example, people tended to naturally cluster together with the people they felt were like themselves, Choi said.

"When people first come to church, they look for, 'Is there someone like me here?' If you're a 22-year-old female, then you're likely looking for other people like that. People aren't necessarily visiting a church looking for someone different from them -- that's kind of our human nature."

Crossway has been taking some intentional steps to foster more interaction between age groups. Ev-

ery few years, the church leaders would change the small groups to include members of different life stages, for example. Crossway also has a women's ministry that includes mentorship, as older women meet with three to four younger women each month to study the Bible. Once a month, members of youth group would join the adult worship service "so that when they graduate, [the adult service] doesn't feel like a foreign place," according to Choi.

Hence, Choi said, regardless of the model or context of the church, struggles and challenges are existent across the board.

"It's not so much the model [that matters]. Younger pastors might think that -- 'If I could just get the right model.' But the model is just that -- a model. It doesn't mean it's better," he added. "All people are sinners. And the sin issue is the same and prevalent, no matter what church."

Rather than focusing on the ideal model of the church, leaders must be willing to take initiative in whatever context they are in, and to be wholeheartedly faithful with whatever they are entrusted with, Choi said, and leave the results to God.

"You can create a culture within your ministry, whether it's a Korean American church, multi-ethnic church, wherever. You can make it a positive place with a gospel centered message. I know a lot of guys who were in 'bad' churches, but their specific ministries were thriving," explained Choi.

"If you're leading a youth group with 30 kids, make that the best that you can do. Pour yourself into preaching the sermon for them as much as if you were preach-



Reverend Steve Choi is the lead pastor of Crossway Community Church, located in Brea and Irvine, CA.

ing in front of thousands. Give yourself fully to it, and work on becoming an A-plus leader with the capabilities you have now. If you're 28 years old, become the best 28-year-old pastor you can be ... It's God who opens doors and who allows people to have certain platforms," Choi encouraged and advised younger pastors.

Choi said he, too, experienced the struggle to be faithful in each context, and trusting God in the process. Choi started out as a youth leader at Canaan Presbyterian Church when he was still in college, which eventually led him to become the pioneer of the English ministry at that church. Then, Sa-Rang Community Church asked Choi to come on board as its EM pastor, which he described "as a daunting task" for him at the time because most of the members

were older than him. In retrospect, all of these experiences prepared him to plant and lead Crossway, Choi said.

"I had no control over what happened in my life, and I take no credit for the growth that our church had experienced," Choi said. "It's just God who places you in certain contexts, and the best we can do is to prepare ourselves before God and be grateful."

"Give your life to presenting the gospel in the best way possible, and God will do the work," he added as an encouragement to younger pastors.

"He will make things change. Certainly it takes time -- a fruit tree doesn't bear fruit overnight. It takes a season. Don't think you're going to make big changes in a short period. Do it for the long haul."

What's Happening in SoCal?

Upcoming events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October 17: Korean American Campus Mission (KCM) will be hosting a "Gospel Renewal Night" featuring Reverend Harold Kim, the lead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s the main speaker. Some 400 to 500 are expected to attend. From 6 PM to approximately 9 PM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d, Brea, California, 92821).

A Korean worship event called Kingdom Dream Concert will also be taking place on October 17, with Reverend Kwan-Woong Cheon, the senior pastor of New Sound Church in Seoul, and New Generation Worship, a Korean worship band. The event in Los Angeles will take place at 2 PM at the Belasco Theater (1050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5).

October 29: The Han-Schneider International Children's Foundation (HSICF) will be hosting its 7th annual benefit dinner and silent auction. HSICF is a Christian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vides food and/or education to children in Cambodia, Tanzania, and North Korea. The semi-formal benefit dinner and auction will begin at 7 PM, and will take place at the Taglyan Cultural Complex (1201 Vine St. Hollywood, CA 90038).

November 6-7: The second annual Asian American Ministry Conference (AAMC) hosted by Biola's Talbot School of Theology will be taking place. This year, the conference will focus on training Asian Americans to be leaders in various contexts, including the home, church, and workplace. From 7 PM to 9:30 PM on Friday, and from 9 AM to 9 PM on Saturday at Biola University (13800 Biola Ave, La Mirada, CA 90639).

November 6-8: The first annual Christ Central Network (CCN) Conference will be taking place from November 6 to 8. CCN aims to provide resources and relational support for Asian American leaders to plant gospel-centered churches and ministries. The conference will offer a time to train leaders, and discuss the vision and mission of CCN, among other topics. From 7:30 PM Friday to 1:30 Sunday at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reet, Artesia, CA 90701).

Prayers for the U.S. Continue; This Time, Led by Korean Leaders

BY RACHAEL LEE

After the "Line in the Sand" prayer gatherings that took place on November 11 in previous years, this year, Korean church leaders will be leading a gathering to pray for the nation called "Heal Our Land" on November 29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The year ahead of us is a hugely significant one," says Reverend Ezra Kang, the president of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JAMA), one of the co-hosting organizations. "Presidential elections will be taking place next year, and we are in dire need of God-fearing leaders in our nation. The next President will influence the

course of our nation for the next four to eight years, and how much religious freedom there will be for churches, Christian schools, and Christians in business."

Thousands have attended the two "Line in the Sand" prayer meetings that took place in 2011 and 2014, and at first glance, many of the aspects of "Heal Our Land" seem similar. Many of the sam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hosted "Line in the Sand" are organizing "Heal Our Land," including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KCC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JAMA),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CKCOC), David Andrade, and Michael Petro. This

year's prayer gathering will also be focusing on praying for various social and spiritual issues affecting the nation, and church leaders of the many different ethnic groups that live in the country will be invited to lead prayers.

However, unlike the previous "Line in the Sand" prayer meetings, which were mainly hosted by David Andrade and Michael Petro, this year's "Heal Our Land" is hosted and funded by Korean church leaders. Also unlike previous "Line in the Sand" gatherings, which lasted from the early afternoon to late evening, this year's "Heal Our Land" will last four hours from 4:30 to 8:30 PM. Instead of having bilingual translation as needed

depending on which ethnic church leaders were leading the prayers as in previous years, this year, the entire prayer meeting will be held bilingually in Korean and English, and translation devices for different languages will be provided.

"This year, we wanted all of the ethnic groups that live in this country to pray all together during the same time," said Reverend Ki-Hong Han, former president of KCCA. Previously, church leaders of specific ethnic groups led specific time frames of prayer over the course of the day.

Details on how and when the leaders of various ethnic groups will be leading prayers are still to be determined, organizers say.

L.A. Churches Unite to Plant 'A Gospel-Driven Church for Every Neighborhood'

BY RACHAEL LEE

On a given weekend in Los Angeles, a newcomer to one church plant can find both a charismatic and a Presbyterian pastor at the Sunday worship service, while passersby of another church plant might hear music from the church's weekend party or mixer.

"People would ask me, 'So, you did tell them that you're from a charismatic background, right?' And I would tell them, 'Yeah, we talked about all of that stuff. They're fine with it.' And they would still ask me again, 'Yeah but... They really do know, right?'" recalled Pastor Raul Martinez, who planted Canoga Park Presbyterian Church, describing the reaction he received from others when he first broke the news that he would be planting a Presbyterian church with a Presbyterian pastor. Martinez was a member of Praise Chapel, a charismatic Latino American church with multiple church plants.

"God is definitely bringing together two different flavors if you will," Martinez continued, "but we have the same purpose, and that is on reaching those who are lost, hurt, and broken -- reaching them and restoring them to Christ."

Radius Church, located in North Hollywood, hosts parties or mixers

on weekends from time to time.

"We want to allow people who don't identify as Christian to become more accustomed and get more exposure to what Christians are like," said Pastor Joseph Barkley of Radius. Barkley says the vision of Radius is to reach those who are convinced that church is irrelevant.

He tells the story of a non-believer who once was invited to a Radius Church party, without knowing that it was hosted by a church. Barkley was conversing with him when all of a sudden, he drew closer to Barkley and whispered, "Did you know there are actually a lot of Christians here? And they're actually kind of normal," not knowing Barkley's occupation.

Barkley whispered back, "I'm one of them."

"I told him afterwards about our church, and invited him to come out to one of our Sunday services," Barkley recalled. "And he showed up the next Sunday morning."

These two unique churches are the most recent church plants of the Los Angeles Church Planting Movement (LA CPM), a network of churches in L.A. that are working together to fulfill one goal: to plant gospel-driven churches in every one of the over 100 neighborhoods in the city.

Anywhere from five to nine

churches in the LA CPM network would invest together to raise up to \$250,000 for each church plant. Stadia, a catalyst for church planting in the U.S. and internationally, partners with LA CPM and contributes financially to each church plant as well. Stadia staff also have the church planters go through "assessments" to evaluate their qualification and readiness, train and coach the church planter, and offer help in accounting services, spouse care, and others throughout the process.

Though the process -- particularly the assessment -- is "hard work," says Barkley, it all works toward the goal to build a gospel-driven church.

"I appreciated that there is a group of men and women who care so much about having a gospel-centered church that they ask us all of the hard questions about what our church is about. My wife and I were encouraged, affirmed, and challenged through the process," he said at the most recent LA CPM gathering on October 1. The group holds three gatherings each year for pastors, church planters, and lay leaders to get to know one another and for LA CPM planters to share updates.

Since LA CPM's inception in January of 2013, seven churches have been planted in Los Angeles,



Those who were present at the October 1 gathering prayed over church planters and those who are considering planting a church in the near future.

and seven more churches have been planted overseas by Stadia to match.

Each of the church plants have unique stories with unique contexts. Resonate Church is a church plant located in West LA, at the heart of which is Santa Monica. Yet 95 percent of Santa Monica residents is "unchurched," says David Cobia, the lead planter of Resonate. Legacy Minded Church is located in Burbank, where the lead planter Chris Nicely hopes that storytellers and filmmakers would hear the story of Jesus. And Praise Chapel of Westlake, an area

of L.A. which church planter Ruben Nuño describes as the "epicenter for gangs," has seen 75 percent of its congregation being saved. Nuño testifies of members who used to live in a car, or formerly sold drugs, who are now serving as "the pillars" of the church, from ushers to Bible study leaders.

"There's hope today," says Nuño. "Even in the hardest area, even in the darkest corners of our city, the light of Christ is shining. And these church plants are gonna continue to usher in God's kingdom into every community of Los Angeles. We believe that."



건물을 세울 것인가, 인재를 키울 것인가?

이제는 다음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Chambersburg 에 개교한 글로벌 선진학교 /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한국교육과 미국교육의 만남/ 동서양교육의 장점을 융합시킨 글로벌 선진학교
 비성경적 세속교육의 흐름을 대체할 성경적 가치관 중심의 중.고등교육
 185 에이커의 광활한 캠퍼스. 80여동의 교육시설과 스타디움, 수영장, 2개의 실내체육관, 강당, 채플, 도서관, 휴게실, 실험실, 태권도 체육관, 기숙사 등 최고의 시설로 펜실베이니아주 Chambersburg시에 개교되었습니다.
 한국학생, 재미한인학생, 미국인학생, 아시아학생, 제3세계현지학생,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이 함께 공부합니다.

- 이 학생들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 최고의 대학들이 탐내는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 다음세대에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후원기관

KISS USA (CEO 장윤진)
 Orthopedic 병원그룹 (CEO 김상범)
 Custer Development Group (GP양두식)
 아메리카 한인 재단 (총회장 이우호)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성우)
 펜실베이니아 한국전 참전유서 협의회
 Scotland Campus Inc. (CEO David Newell)
 미주성시화운동 총리클럽 (김경수장로)
 미주 GMS 대표 (한성수 목사)
 Son Ministry (김정환 선교사)
 KCCC USA (담임 김동환 목사)
 위기특고텔레비전 (김경환)
 경상북도 문경시 (고윤환 시장)
 사 아를 다운정소년들 (이화식)
 한양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소 (안미리)
 주)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구태규)
 인도어린이 교육선교회 (이은옥)
 주)리빙라이프 (김영환)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경상남도 함양군 (임정호)
 The Kingdom of Cambodia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H.E NHEK BUN CHHAY)
 충청북도 음성군 (이필용 군수)
 국모성모안과 (박진용)
 C 채플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
 English School Attached to Guangdong-Basileia Mining Corp Cambodia (Jonathan Kim)

자매학교

USA
 Turlock Christian School (CA)
 Linfield Christian School (CA)
 Ripon Christian School (CA)
 Tri-City Christian School (CA)
 Valley Christian School (CA)
 Modesto Christian School (CA)
 Broadfording Christian Academy (MD)
 Grace Academy (MD)
 Clear Lake Christian School (TX)
 Brentwood Christian School (TX)
 Christian Academy of English Station (KY)
 Christian Academy of Indiana (IN)
 Christian Academy of Southwest (KY)
 Red-Lion Christian Academy (DE)
 Cumberland Valley Christian School (PA)
 Missouri Academy (MO)
 Trinity Christian School (CA)
 Peninsula High School (CA)
 Tall Oaks Classical School (DE)
 Delaware County Christian School (DE)
 Heritage Christian School-South Campus (CA)
 Shattuck Saint Mary School (MN)
 Open Door Christian School (OH)
 Mountain View Christian Academy (VA)
 Rockford Christian School (IL)
 Christian Fellowship School (KY)
 Foxcroft School (VA)
 Maranatha Academy (CA)
 Faith Christian School (TX, IN)

Hyde Park Baptist School (TX)
 Calvary Chapel Schools (CA)
 WTS & BCA (David Draper, Ralph W. William)
 University of Findlay (Katherine Fell)
 Liberty University Korea (정승민)
 Vietnam
 Ton Duc Thang University Vietnam (Thai Huu Tuan)
 China
 English School Attached to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eople's Republic of China (Guangzhou)
 Beijing 21st Century International School, People's Republic of China (Beijing)
 Dalian Golden Pebble Beach Experimental School of China Education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East Education Group), People's Republic of China (Dalian)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김진경)
 Indonesia
 Ichthus Christian School (Zakarta)
 Tritunggal Christian School (Semarang)
 Satya Wacana Christian Senior High School (Salatiga)
 Vita School (Surabaya)
 Salatiga State Senior High School (Salatiga)
 El Salvador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San Salvador)
 Korea
 늘사랑기독교 (정승룡)
 벨기에 겐트대학교 송도캠퍼스 (Jozef Vercauysse)
 종신대학교 (정일용)

후원교회

세인트 루이스 한인교회 (담임 서정근 목사)
 남가주 가스펠 교회
 뉴저지 하블론 교회 (담임 홍인석 목사)
 뉴저지 시나브로 교회 (담임 박근제 목사)
 주남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나성동산교회 (담임 한기형 목사)
 코탈리지한인교회 (담임 이우호 목사)
 샌디에고 한인연합 감리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큰빛 감리교회 (담임 조원영 목사)
 파데말라 한인교회 (담임 김상돈 목사)
 시애틀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한용석 목사)
 Chambersburg First Church of God
 GreenVillage Church of God
 안동서부교회
 서울동안교회
 삼척큰빛교회
 대전세로남교회
 충주남부교회
 안산명성교회
 울산소리교회
 부산호산교회
 광주임신교회
 청주태백교회
 전안하늘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글로벌 선진학교 (GVCS)

글로벌 선진교육 장학재단 GVCS FOUNDATION

www.gemgem.org

입학상담 및 후원문의 : (717)830-9356 (강유준 교감), (614) 725-6632 / (714) 742-2674 (송하은 간사)

후원금 및 송금계좌: BANK OF AMERICA / Account # : 000099361655 / Routing # : 026009593

후원금 체크 발송주소 : 10231 Lotus Court. Stanton, CA 90680

체크수신자 : GVCS Foundation or GEM Inc.

• 재미크리스천 한인자녀를 위한 “고국방문행사”가 2016년 7월4일 - 23일까지 (약 3주) 한국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참가문의: (614) 725-6632 (송하은 간사) Email: haeynsong@gmail.com

